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기원 범도민 위촉식 및 다짐대회

11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관에서 열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다짐대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올림픽 유치 기원 성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사진=전북도>

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열기 ‘붐업’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범도민 지원위원회’ 출범, 본격 행보
‘트롯신동’ 김태연 홍보대사 위촉... 화합 퍼포먼스로 유치 열기 고조

전북자치도는 11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관 대공연장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다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서거석 도교육감, 정강선 도체육회장,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체육계, 학계, 언론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도민들은 전북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짐대회는 도립국악원의 전통 공영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도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열망을 더욱 고조시켰다. 행사에서는 전북 14개 시군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다짐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의 모든 역량과 자원 결집 ▲전북의 경쟁력을 세계에 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유치 활동 전개 ▲균형발전과 K-컬처, 친환경 올림픽 비전 확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의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화합 퍼포먼스’였다. 참석자들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무대 중앙 성화대에 불을 밝히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재차 기원했다. 또한, 부안출신 ‘트롯신동’ 김태연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특별공연을 펼쳤다. 도는 이날 행사에 앞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한 범도민 지원위원회’ 위원 4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가 꿈꾸는 올림픽은 가장 전북답고, 세계적이며, 지방도시 간 연대와 다채롭고 빼어난 문화를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올림픽이다”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행정심판위원회, 3대 권익구제 강화

도민생활 밀접사건에 행정전문가 등 복수주심제 도입
경제적 약자 소상공인 위한 법률 지원 확대, 국선대리인 운영
전국 시도위 최초 청소년사건 심리기준 완화... 소상공인 보호

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를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수주심제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청소년 관련 사건의 심리기준을 완화해 선풍한 소상공인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민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도민 생활 밀접사건이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행정심판위원회는 복수주심제를 도입해 기존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행정전문가도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한다.

특히 지난해 전국 시도위원회 중 최초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개정법률’을 반영해 청소년 관련 사건의 심리기준을 완화했다.

이 기준이 적용된 지난해 18건의 청소년 사건 중 13건이 일부 인용됐으며 이 중 10건이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해 감경됐다. 이는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보호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은 “도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건을 면밀히 심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 디즈니월드같은 글로벌 테마파크 최적지”

전북백년포럼서 선도성 프로젝트 투자 필요성 제시
가족중심, 첨단기술 접목된 복합 멀티 콘텐츠 조성
관광레저용지 대상 구체적 개발 프로세스 마련 필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선도성 프로젝트 투자가 필요하며 저렴한 부지공급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임영수 전문위원은 11일 전북연구원이 전 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에서 ‘복합테마파크 이해 및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개발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전문위원은 이날 특강에서 테마파크의 특성과 함께 세계 각국의 테마파크 사례를 소개하며 새만금에 개발가능한 글로벌 테마파크의 구체적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테마파크의 주요 키워드는 가족 중심, 다양한 테마, 대형화 및 복합화, 첨단기술 접목, 세계적 테마파크 브랜드, 도심형 복합엔터테인먼트, 멀티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에 이를 반영한 글로벌 테마파크를 개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컨대 외국의 월트디즈니월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하우스 오브 리조트월드 산토사, 키디야 엔터테인먼트시티, MGM 스튜디오, 캐리비안 베이 등 글로벌 테마파크 입지로 최적화했다는 것이다.

임 전문위원은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화를 위한 7개 세부 전략도 소개하며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발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전문위원이 제시한 7개 전략

은 ▲선도성 프로젝트 선정후 점진적 사업 확대 ▲가든형 테마파크부터 단계적 투자 ▲특화원출 및 스튜디오텔링 ▲랜드마크 도입 ▲관광숙박과 온천형 레저를 결합한 물놀이 시설 ▲특색있는 숙박시설 도입 ▲테마파크와 IP 결합 등이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새만금은 풍부한 생태·문화·역사 관광 자원과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한 최적지”라며 “전북연구원 역시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방향 등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정소민 기자

전북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전북타임스와 함께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8800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도정 및 교육 행정 5분 발언

김성수 도의원, “거점조성 계획 반영 단위사업 144개 중 신규 24개 불과…실효성 있을지 의문”

전북자치도의회는 11일 오후 첫 회기인 제416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시책방향을 청취한다.

오는 21일까지 11일 간의 일정 중 첫날인 이날 도의회는 모두 10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김성수 의원(문안소위, 고창군 제1)=도는 K-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조성을 위해 4개년간 총 4조1천816억이 투입되는 10대 전략, 40개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사업들을 망라해서 나열한 수준으로, 예컨대 거점조성 계획에 반영된 단위사업은 총 144개인데 이중 민선 8기 신규사업은 24개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의 83%를 기존 계속사업으로 채우고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 17%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윤영숙 의원(교육위, 익산시 제3)=지난해 연말 김제 모 초등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현재 도교육청에서 조사 중이다. 이 사건



김성수 도의원



윤영숙 도의원



오은미 도의원



김명지 도의원



강태창 도의원

의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과중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저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업무를 전담, 과중한 업무 등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 직원 배치 기준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원업무 감소 및 교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직원이 1명만 있는 행정실은 고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오은미 의원(농복합위, 순창군)=도내 복지 일선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전국 꼴찌 수준, 농도인 전북의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청년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전북을 떠

나고 있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도민에게 희망 고문만 안겨줄 올림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재판이 될 올림픽 유치를 당장 당장 멈춰야 한다. ▲김명지 의원(기행위, 전주시 제11)=전북 인구의 독 역할을 하던 전주, 군산, 익산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20년까지 전체 인구와 청년인구 모두 증가하던 전주에서 22년부터 매년 1만여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중 청년 인구가 5천~6천명이다. 군산과 익산도 수천명씩 줄고 있어 전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인구 급감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 못지않게 질이 중요한데 전북은 질은 고사하고, 양도 못 챙기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태창 의원(기행위, 군산시 제1)=전북의 국악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도 전북자치도는 두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1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악의 대중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3년간 사업 내역을 보면 3건에 3억원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면 전북에서 국악은 낯선 문화가 될 것이다. 전북 국악의 미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 첫째, 국악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고 둘째, 도내 국악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셋째, 국악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국악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악을 소재로 하는 문화산업 기반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김관 기자

도,여성아동가족분야민간단체지원사업공모

자부담 10%, 수혜 범위 2개 시군 이상 필수

전북자치도가 여성·아동·가족 분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아동의 권익증진 ▲가족 관계 증진 및 결혼·출산장려 촉진과 다문화가족 지역 정착 지원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총 8,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 최근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공익활동 실적이 있으며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는 2개 시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공익활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 3년 이상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5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 단체활동 관련해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자부담 기준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에서 ‘보조금의 10%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도 기존 ‘5년 연속 지원사업’에서 ‘3년 이상 동일·유사사업으로 5년 연속 지원사업’으로 조정됐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 18시까지 전북도 여성가족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결과는 3월 말 전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개별 안내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 도 여성가족과장은 “선정된 단체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기록적 폭설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800명이 참석했다.

“정치가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의정보고회는 계엄 사태·탄핵 정국을 비롯한 최근의 정치 상황과 입법·정책 활동 성과, 정읍 주요 현안사업, 민원해결·예산확보 내역과 22대 국회에서 정읍의 변화를 위해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역강부약(抑強扶弱)의 정치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83건의 민생법안을 소개하며 ‘해결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자치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준비 착수

전북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최종 전략을 점검하며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1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 성과를 공유하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RE100 에너지솔루션 일라이언스 위원, 시군 관계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특화지역 모델을 검토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특성에 맞춘 최적의 특화지역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중간 보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도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은 ▲산업단지 중심 에너지 공급 확대 ▲농촌 지역 에너지 자립 실현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됐다.

먼저 산업단지 중심 모델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친환경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또한 농촌 지역 모델은 지역 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 농업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복지를 함께 도모하는 전북형 지속가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특화지역 계획을 보완한 뒤, 3월 산업부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소과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전북이 친환경 에너지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부 공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안호영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지역 주민들 의견 등 절차 생략되면 사회적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안호영 도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주당 의원이 전력망 계획 수립부터 건설 운영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사업비는 수천 억에서 수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가 돼야 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안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이 호남 등에 밀집돼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사업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로 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 보장하고 관련 정보 공유하며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안 의원은 “전력망 특별법은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에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의 절차가 생략되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장연국 도의원, “윤석열 헌정 파괴…파면돼야”

장연국 도의원은 11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16회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설에서 “12.3 내란사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전 국민이 TV를 보는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다”며 “파면돼야 하고 형사법정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농민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

련하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완화에 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정책 금융 등을 적기에 투입·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등 도민의 민생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 특례발굴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현안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유치, 첨단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 등 미래첨단기업의 발굴·유치·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상임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 연구단체 등을 통해 점검·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원은 “강원·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의회 인사권·조직권·예산권 완전독립, 의원정수 확대 및 정부보좌관제 도입,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 법제화 등을 특별자치시도의회에 우선 적용하도록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남원시 공고 제2025-295호 |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남 원 시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일원

나. 근 거 :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다. 목 적 :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ha이하) 해제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 농업진흥지역 489,494㎡ → 농업진흥지역 489,494㎡ - 해당 필지는 해제(안)으로 변동가능이 있고, 심의결과 제외될 수 있음 마. 해제기준 :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집산화된 농지와 분리된 3ha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도로 폭 8m 미만 제외)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5. 2. 10. ~ 2025. 2. 24.(15일간)

나. 열람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고시공고

다. 열람내용 : 해제(안) 필지조서 [남원시 홈페이지 참고]

라. 의견제출 : 남원시 농정과에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5층

- 팩 스 : 063-620-6713

3. 기타사항

가. 본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 계획(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 및 반송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지관리팀(☎063-620-6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자부담 폐지…발급 개선

올해부터 자부담 폐지…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절차 간소화
카드 자동 충전 방식 도입해 매년 재발급 없이 지속 사용 가능

전북자치도는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카드 발급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1인당 15만원 지원금 중 13만원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2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보조금(13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또한, 카드 발급 방식도 대폭 개선됐다. 기존에는 매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후, 자부담 2만원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 명의의 농협카드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한 차례만 농협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인증을 받으면 매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 충전으



전북자치도는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카드 발급 방식을 개선한다.

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농협카드를 여성농업인이 70~80% 사용하고 있어 대다수 이용자

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발급 수요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유휴·건강보험 적용·사이버 거래·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문화·학습 활동을 위해 현금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부터 자부담 폐지 및 카드 발급 방식 개선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적격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한지박물관, 소진영 작가 초대전 개최
기획초대전 ‘햇살 가득한 날에’…한지로 희망·평화 전해

전주한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이달 11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소진영 작가의 ‘햇살 가득한 날에’라는 제목으로 기획초대전을 개최한다.

전주한지박물관은 2025년 새해 첫 전시로 ‘빛’을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따스한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자 한다.

한지는 그 자체로 고유한 질감과 빛의 투과성, 그리고 섬세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한지의 특성은 빛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그 모습을 변화시키며,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소진영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햇살이 내리쬐는 순간의 감각적 요소들을 그대로 작품에 담아내고,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이 아닌 정서적으로도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 작가는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각기 다른 색과 형태를 가진 빛들이 한지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관객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과 따스함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진영 작가는 학부에서 조소를 전공 후 한국적인 소재를 찾아 한지로 조형예술디자인학과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제20회 대한민국한지대전 현대부문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소진영 스튜디오 대표로 활발한 작품 활동 중이다.

전시 장소는 전주한지박물관 2층 소를 그대로 작품에 담아내고,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이 아닌 정서적으로도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 축산농가 자연재해 대비 재해보험 가입 독려

올해 가축재해보험 140억 예산·가입비 75% 지원…재해 질병 발생 시 60~100%까지 지원 농가경영 안정

전북자치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가 손실피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 신속하게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비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농가 부담은 25%이나 납원시,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에서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5~10%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이 돼있고 소, 돼지, 말, 가금류 기타가축 등 16개 축종이며 가축사육 시설도

보장된다.

축종별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주요 보장은 가입 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 60~90%, 돼지 80~95%, 가금 60~90%, 사슴·양·꿀벌 60~95%이며 축사 90~100%를 보상해 준다. 보험가입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 청구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

다. 지난해에는 질병폐사, 화재, 풍수해 등의 피해 입은 1천949호에 26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면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농촌진흥청, 농기계 업체와 상생·협력…“스마트농업 시대 앞당기겠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11일 LS엠트론 전주공장 방문…발농업기계화·자율주행 트랙터 활용 등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힘 모을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농기계 산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있는 LS엠트론(주) 전주공장을 찾아 생산 현

장을 둘러보고, 청과 LS엠트론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권 청장은 “LS엠트론이 본격 양산하고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는 우리나라 농업 첨단화를 이끄는 대표적 사례이다”라며 “우리나라 발농업기계화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농기계 산업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

화해 스마트농업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67% 수준인 발농업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작물(마늘, 양파, 배추, 감자, 고구마, 무, 콩, 고추)에 필요한 발농업기계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기술 보유 민간 전문기업

과 스마트 농기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권재한 청장은 오는 21일 한국농기계공업협회동조합에서 농기계 산업계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농기계 정책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방안과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2025년 WM로드쇼’ 개최

자산관리·신탁·연금 등 WM사업 총망라 세미나…담당직 역량 강화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11일 전북 관내 영업점 WM(Wealth Manager, 자산관리 전문가)을 대상으로 ‘2025년 WM로드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WM로드쇼’는 자산관리, 방카, 펀드, 신탁, 퇴직연금 등 WM사업을 총망라하는 자산관리 세미나로 시장현황부터 마케팅 기법까지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북 관내 WM담당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김성훈 본부장은 ‘고객 중심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곧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명심하여 불안전판매 예방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천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현재 WM특화점포인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 3개를 운영 중이며 금융, 부동산, 세무를 아우르는 일대일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친환경 소비문화 확립

전북농협, 54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직거래 환경 조성

텃밭에서 갓 수확한 채소를 손질해 바로 식탁에 올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선한 먹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 것이다. 자연 속에서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곧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식재료 제공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 문화의 시작이 된다.

이러한 ‘텃밭의 신선함’을 내 집 주변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북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넓히며,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로컬푸드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유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일례로, 읍면농협이 2012년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도입하며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한 이후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방식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전북농협은 54개소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관리’, ‘친환경 소비문화 도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북농협은 54개소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관리’, ‘친환경 소비문화 도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 만족하는 직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품질 관리”를 위해 전북농협은 2018년부터 ‘출하전(사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시·군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이며, 매년 약 1,200여건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지역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생산자가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친환경 소비문화 도입’으로 현재 일부 직매장에서 포장 없이 개별농산물을 필요한 만큼 담아가는 ‘박스스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층 더 나아가 올해 10개 직매장을 대상으로 ‘제로웨이스트 로컬푸드 직매장’ 시범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예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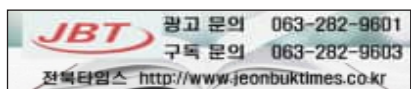
예를 들면 플라스틱대신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리퍼브(Refurb)상품 코너를 신설해 외형이 살짝 손상되었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농산물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김장철 직거래장터와 농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내손으로 만드는 건강한 식탁과 같은 쿠킹클래스를 운영하여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도약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직거래 환경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준호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창지구협의회(회장 나순희)가 보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써달라며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창지구협의회 나순희 회장은 “작년 한해동안 같이 애써주신 고창지구협의회 봉사원들이 계셨기에 많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적십자 인도주의 봉사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창지구협의회는 경로당 물품 지원, 복날맞이 삼계탕·반찬 나눔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전북 교육계, 차기 교육감 선거 군불 지피나?

김윤대 우석대 사범대 학장·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등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유력 주자들 ‘전북교육포럼’ 참석

최근 서거식 전북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리자 전북 교육계의 일부 주자들이 차기 교육감을 노리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개최된 ‘전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전북교육포럼’도 이 중 하나로, 이번 포럼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사노동조합, 좋은교육시민연대, 전북학력신장협의회, 전북교육발전참여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아직 출마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를 비롯해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김윤대 우석대 사범대 학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 차기 전북교육감

유력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윤대 교수와 유성동 대표는 포럼에 참석해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윤대 교수는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북도민에게 인지도가 있고 이재명 대선캠프의 싱크탱크 세바정 정책부단장으로 활동하며 차기 교육감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성동 대표는 초등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행정가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교육감 출마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교육계의 한 인사는 “제1회 전북교육포럼’은 전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해법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자리라기 보다 차기 교육감 출마를 염두에 둔 탐색전 성격으로 읽힌다”며 “보궐선거가 될지 내년 지방선거가 될지는



지난 11일 전북대학교 전수당에서 ‘제1회 전북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아직 미정이지만, 교육감 선거전은 무로익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또 다른 인사도 “그동안 교수 출신 교육감이 선출돼 왔다. 한국 교육 흐름을 봤을 때 도민들과 교원들은 교사 출신의 교육감을 원하고 있다”며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충분히 차기 선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일반 529명·장애 2명 총 341명…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문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1일 2025학년도 전북 공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341명을 결정하고, 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에 공고했다.

총 372명(일반 339명, 장애 33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은 제1차 시험에서 531명(일반 529명, 장애 2명)이 합격했으며, 최종합격자는

341명(일반 339명, 장애 2명)이다.

개인별 합격여부와 성적은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edurecrui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번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는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며 연수기간과 수강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한약학과, 국가시험 3년 연속 수석 합격자 배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한약학과가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3년 연속 수석 합격자를 배출함과 동시에 응시생 전원이

학과는 재학생 42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기록했다.

이번 한약사 국가시험은 전체 133명의 응시자 중 120명이 합격해 90.2%의 합격률을 보였다.

김민우 학생은 “학과 교수님들과 동기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학과에서 배운 지식과 실습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약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100% 합격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가시험원)이 지난 달 8일 시행한 제26회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우석대학교 김민우(한약학과 4년) 학생(사진)은 250점 만점에 224점(89.6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해 전국 수석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한약

도교육청·전북학부모회협의회,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와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남 여수와 광주에서 ‘2025년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도내 767개 학교 학부모회와 14개 지역 학부모회를 대표하는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해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교육 참여 확대 방안,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시행규정 개정안 논의 및 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과 광주광역시 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을 방문해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례도 살펴보았다.



정유미 전북학부모회협의회장은 “지역 내 학부모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이끌어내고, 학부모와 교육청 간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맺을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전학생 ‘전북에듀페이’ 지원… 340억 원 투입

초1~고3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 지급… 교육의 공공성 강화·복지 확대로 학부모 부담 경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에도 모든 학생에게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7만5,000여 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서 총 340억 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로 지난해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입학지원금은 초·중·고·특수학교(해당학년과정) 1학년 신입생에게 지급하며 가방,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다.

학습지원비는 학생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로 초등학교 2~5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에게 지

급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다.

진로지원비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5만원, 중·고등학생 30만원이다. 도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둔 9~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난달부터 학습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초·중학교 연령은 월 5만원, 고등학교 연령은 월 10만원이다.

전북교육청은 내달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에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을 상세히 안내하고 입학지원금은 3월 중, 학습 및 진로지원비는 4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금속공학과 전북대생들, 세계철강협회 경진대회 대·금·은·동상 휩쓸어

전북대 이준호 박사과정생 동아시아 지역 우승자 대상 차지… 오는 4월 호주 시드니 ‘세계 챔피언십대회’ 참가 예정

전북대학교 금속공학과 대학원생들이 최근 세계철강협회 주최로 열린 철강기술 경진대회인 ‘제19회 스틸챌린지’에서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을 모두 휩쓸었다.

이 대회에서 전북대 이준호 박사과정생이 대상을 차지하며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 최정후·김성진 석사과정생

이 각각 금상을, 최성혁 석·박사통합과정생이 은상을, 성윤제 석사과정생이 동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준호 학생은 동아시아 지역 우승자로서 오는 4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세계 챔피언십대회에도 참가해 세계 챔피언에 도전한다.



정월대보름 이란?

음력 정월 보름날 즉, 매년 음력 1월15일
일 년 중 가장 크고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날.
농경을 기본으로 했던 우리 문화에서
보름달은 풍요를 의미 하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은 ‘한 해의 무사기원과 건강’을
비는 큰 축제로 인식 되었다고 한다.



정월대보름 풍습

달맞이, 쥐불놀이,부럼깨기
더위팔이

정월대보름 음식

오곡밥, 묵은나물, 부럼,
귀밝이술



군산시,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보조금 지원

군산시가 유류가격 상승에 따라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 예산을 통해 확보한 7억 6천만 원이다. 기간은 예산 범위를 고려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인상분에 대하여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어업용 면세 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 어선 ▲어획물 운반업 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 종자 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최근 5년 동안 어업용 면세유 평균가 대비 2024년도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유종별 리터(ℓ)당 경유 115원, 휘발유 94원, 중유 67원을 정액 지원한다. 만약 지원총액이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 단가를 조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 도내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식품산업 선도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대’

익산시가 미식산업 발전 방향과 6차 식품산업 성장 전략을 모색한다.

익산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영석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과 미식산업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분야별 전문가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대표 음식·맛집 발굴과 육성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활성화 ▲NS 푸드페스타 2025 in 익산' 프로그램 논의 ▲㈜하림공장 견학과 문화관광 연계 사업 ▲6차 식품산업벨트 기반 구축 등이 논의됐다.

또한 토론자들은 익산 미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6차 식품산업도시 도약을 위해 1차 농업, 2차 식품제조업, 3차 문화관광이 협업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병원성 AI 원천 차단!” 정읍시, 집중 방역 돌입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읍시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지역 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

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집중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8일 군산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으며 국내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총 34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는 토종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4곳과 관련 차량에 대한 시료 채취와 정밀 검사를 오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률이 높은 산란계·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2주간 집중 소독 주간'(2월 3일~16일)을 운영하고 농장 진입로 소독을 기존 대비 2배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과 공고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나 계열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

2020년 대비 악취민원 절반 감소…점점 대상 단속 강화·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등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악취저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지난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악취민원은 2020년 3,636건에서 2024년 1,455건으로 5년 만에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효과적인 악취 대응을 위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악취 상황실 운영과 악취방지시설 교체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시는 지난해 ▲가축분뇨냄새 1,098건 ▲공장냄새 176건 ▲기타 181건 등 총 1,455건의 악취 민원을 처리했다. 또 악취배출사업장 361개소를 점검해 238개소의 시료를 채취하고,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12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악취 저감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악취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제1·2 산업단지 인근 신규 공동주택에 1만 3,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만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힘쓴다.

야간조업사업장 등 특별점검 대상 67개소를 선별해 야간 순찰·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악취 규모가 큰 통합하거사업장 20개소는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악취민원 중 76%를 차지한 축산악취 해소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중점 관리농가 55개소를 선정해 가축분뇨법 병행 처분, 축산악취 상시감시반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상반기에 악취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총 24대의 악취측정장비와 악취측정 차량을 활용해 상시 감시를 진행한다. 민원이 신고된 지점을 중심으로 바람 방향을 역추적해 악취 발생 위치와 성분 물질을 분석하고, 사업장 현황을 확인해 신속한 악취 차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을 지원해 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 사업장에 총 4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생활 악취시설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지방자치대상 大賞 수상

혁신정책 부분 대상 수상… '민선8기 정읍형 민생회복 지원' 우수정책 사례 공유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혁신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뛰어난 성과와 정책을 펼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한다.

이 시장은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예산 절감을 통한 민선8기 정읍형 민생회복 지원' 정책을 집중 추진하며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특히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효율화 ▲외부 감사 도입을 통한 사전심의 강화 ▲공법 변경·자재 재할용·관행사업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의 혁신적 조치를 시행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혁신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민 쌀값 하락 보전 지원 ▲육아수당 지원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실현하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025년 농촌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작년 대비 선금·중도금·토지 구입비 한도 상향,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확대

군산시가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할 때 신축 2억 5천만 원, 증축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연 면적 150㎡ 이내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 공제 등 혜택도 다양하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선금·중도금과 토지 구입비 한도를 상향시켰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 공사 시행 전까지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선금, 중도금, 토지 구입비 한도도 상향됐다. 현재 신축·개축·재축에 한한 선금·중도금은 6,000만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3,000만 원, 토지 구입비 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신축·개축·재축 선금·중도금이 7,500만 원, 증축·대수선은 4,500만 원, 토지 구입비는 9,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군산시는 올해 22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21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후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2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초등 공공형 방과후학습관 ‘더봄’ 운영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 강화… 공방·웹툰·치어리딩·월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익산시가 교육청, 지역 대학과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교육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형 방과후학습관 '더봄' 운영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본격 운영에 앞서 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지역 초등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 기법을 적용한 원예 체험이 운영돼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 심신 안정 등에 기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익산시 지역아동

센터 협의회를 더봄에서 개최하고, 지역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공방 ▲웹툰 ▲치어리딩 ▲월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단순한 방과후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더봄을 조성했다.

더봄(전화로 255)은 남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신축된 주민커뮤니티 시설에 조성됐으며, 고등교육기관인 원광대학교의 지원을 활용해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시는 더봄이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기회를, 학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고부봉기 131주년 기념행사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 개최… 농민군 진군 행렬·공연 등 진행

131년 전,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농민들의 외침이 정읍에서 다시 살아난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131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평면과 고부 일원에서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기념사업회(이사장 이희창)가 주관해 옛 고부군 지역인 이평·고부·덕천·영원·소성·정우면 주민들이 주축이 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부 행사에서는 1894년 1월, 동학농민혁명의 서막을 알렸던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진행된다. 당시 농민들이 최초로 혁명을 모의했던

이평면 예동마을에서부터 말목장터 갈나무까지 농민군 진군 행렬이 펼쳐진다.

2부 행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 기념식이 진행되며 동학농민혁명의 이야기를 서사 형식으로 풀어낸 동학창극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또한, 소원기원 액운정화식과 함께 동학 4대 장군(전봉준·손화중·김개남·최경선)의 참배 투어도 이어진다.

3부 행사에서는 고부 관아(현 고부초등학교) 점령 재현을 통해 당시 농민들이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조병갑을 몰아내고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깃발 아래 평등한 세상을 염원했던 모습을 재현하며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의회, 제 302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11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춘을 돌려주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통해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등과 운영 지원의 현실화가 시급함을 강조하였고, 서향경 의원은 『공공 텃밭 정책 확대 및 활성화 제고를 바라며』를 통해 유휴부지를 이용한 공공 텃밭의 공간 확대와 초보자를 위한 농업교

육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고경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방용 면세경유 제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12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간담회 개최



익산시의회 보건의위원회 양정민 의원(사진)은 지난 8일 '전북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관련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익산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정민 의원은 "최근 청년 농업인 선

발 인원이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이 실적 쌓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되고 또 청년 농업인들이 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종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소송 농'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익산시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장학재단,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추진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올해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규 사업을 포함한 장학 기금 확보와 정읍장학숙 입사생 확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6일 평생학습관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장학기금 확보와 신규 장학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학수 이사장을 비롯한 10명의 이사가 참석해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장학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정읍장학숙 신규 입사생 명단이 확정됐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정읍장학숙에는 총 93명이 선발됐다. 입사는 오는 17일부터 가능하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더 큰 나

무 키우기 프로젝트'가 도입됐다.

이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3학년 이상 가정 등 정읍시에 주소소를 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며 학생 1인당 월 최대 12만 6000원을 9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정읍시 인재양성과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민장학재단(jcs.or.kr)과 정읍시(jeongeup.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주)지텍,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분양체결

상반기 210억원 규모 투자 예정…심덕섭 고창군수,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

고창군은 ㈜지텍이 지난 6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입주부지 분양계약금 3억5400만원 정도를 납부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력반도체 소재 등을 생산하는 ㈜지텍은 2024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와 3자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번 분양계약을 통해 투자이행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지텍은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력반도체 웨이퍼 소재 등을 생산하며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이다. ㈜지텍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미분양부지 3만9010㎡(1만1800평)에 올해 상반기부터 21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지텍의 제품은 일본기업에서 품질 테스트 중이다. 향후 일본, 중국, 인도 등 전력반도체 생산국가로 수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 전자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력반도체 시장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이밖에 에너지저장장치 소재 기업인



고창군은 ㈜지텍이 지난 6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입주부지 분양계약금 3억5400만원 정도를 납부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오공머티리얼즈는 오는 5월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9만8418.1㎡(2만9711평)에 1630억원을 투자해 160여명의 고용과 연간 2만5000톤의 탄산리튬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전기·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대경에이티씨’는 8월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고창신활력산업단지 1만2716㎡(3846평)에 35억원 상당을 투자해 자동

차 및 가전용 전기·전자부품, 첨단 스마트온실용 기자재를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소유권 이전에 이어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이번 분양계약을 신호탄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본격 추진

해외 마케팅 강화 등 지원, 신청자 6개소에 예산 3억2천4백만원 배정 심의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농업기술센터는 11일 수출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5년 수출 지원사업(사전이행 지원사업, 자생력 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사업은 WTO(세계무역기구) 제10차 각료회의 협정에 의해 ‘수출물류비’ 폐지 결정에 따라 대응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은 수출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검역요건이행, 안전성 검

사, 해외 인증, 수출 보험, 포장재 개발, 신제품 도입, 카탈로그 제작, 샘플 통관비 등 수출 시 사전 발생하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에 조직화·규모화 건설링, 해외 마케팅 강화, 품질관리, 물류 효율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2025년 수출 지원사업의 보조금 심의를 위한 유통식품 분과위원회를 개

최해, 신청자 6개소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배정된 예산 3억2천4백만원에 대해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배정 심의를 진행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WTO 협정에 따른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 환율 상승에 따라 어려운 시점에서 이번 수출사업을 통해 김제시 농산물 및 농식품이 해외시장 경쟁력을 가지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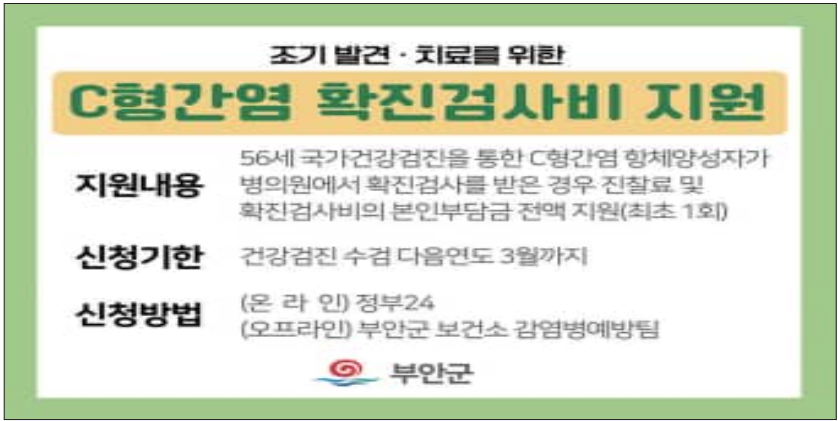
올해 기준 56세 국가검진 수검자 양성 확진 진찰료 및 검사비 1회 전액 지원 사업 시행

부안군은 올해부터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에 의한 간질환으로 예방백신은 없으나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고 방치 시 간경변증 및 간암 등 중증질환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C형간염 항체 검사는 선별검사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일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56세(1969년생)



국가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진찰료와 확진 검사비 본인 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부안군보건소 관계자는 “C형간염은 초기 무증상자가 많으나 무증상 상태에

서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부안군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민생안정 특별대책’ 추진…경제 활성화 기대

고창군이 전 행정력이 총동원된 지역 경기 부양 ‘민생안정 특별대책’이 나선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부양책 마련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 범군민운동’을 시작했다.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는 ▲지역 내 소비 촉진 유도 ▲행사 및 사업의 신속 추진을 통한 경기 부양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1단계는 읍면을 포함한 균형 전 부서 추진, 2단계는 공공과 유관기관 사회단

체까지 동참하는 범군민 소비촉진운동으로 확대·추진된다.

고창사랑상품권 활성화를 비롯해 구내식당 대신 관내 식당 이용하기, 관내 소매업체 활용 및 고창산 상품 사주기 등이 진행된다.

행사와 사업의 신속 추진을 통한 경기 부양책으로 시행된다. 화식이나 물품 구입 등 선(先)결제 적극 시행, 관공급사 신속 발주, 각종 행사·축제를 앞당겨서 추진하기로 했다.

숙박·음식점 등 어려운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고창관광이나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소규모 지역축제와 이벤



트를 열어 고창에서 가족과 지인, 친지 모임 등을 갖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 선정

8천9백만원 확보, 뮤지컬 ‘정글 라이프’·발레 ‘돈키호테’ 선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 공모에서 총 2건의 공연작품이 선정돼 국비 8,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 순수예술의 다양한 장르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공연작품은 ▲뮤지컬 ‘정글 라이프’와 ▲발레 ‘돈키호테’이다.

▲뮤지컬 ‘정글 라이프’는 정글 같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중독성 있는 음악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뮤지컬 작품으로 웃음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공연이다. ▲발레 ‘돈키호테’는 다양하고 현란한 스페인풍의 춤과 유머러스

한 연기가 더해진 발레 작품으로 마치 스페인 광장에서 펼쳐지는 듯한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선정된 공연작품은 각각 오는 6월과 11월 중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지속적인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달 중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들로 구성된 연간 공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체 기획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기회도시 김제’,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 제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10일 열린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주요 성과와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정부의 고강도 건축재정과 비상식적 영향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월 새 없는 도전에 맞서 당당하게 전진한 결과 ▲역대 최초,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돌파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역대 최고, 고용노동부 일자리 평가 대상 수상 등 시정 곳곳에서 김제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인 결실들을

거뿔다.

이어 2025년 역점시책으로 ▲다음 세대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첨단산업도시 ▲시민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민생경제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농업도시 ▲미래 신산업 거점, 새만금 해양항만중심도시 등 10개 분야를 제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5년 시정 슬로건을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정하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과감히 도전하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관영 도지사, 고창군 농업인들 찾아 차담회 가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0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지역농업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고창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도 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과 함께 고창군의 특화 품목인 벼, 고추, 복분자 등 재배기술 교육이 열리고 있다.

농촌지도자 고창군연합회(회장 김춘옥)를 비롯한 고창군 학습단체와

주요 연합회·연구회 등 12개 농업인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농업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고창농업인과 함께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더 나은 전북과 농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직원 대상 ChatGPT 활용 교육 추진

부안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업무 효율성 제고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대상 ChatGPT 활용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매주 화요일 부안군 응기종기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며 각 부서별 희망자를 대상으로 총 1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한 대면 강의로 진행되며 직원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원데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보다 많은 직원들이 AI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국GPT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오아세헤어 전주 효자점 ㈜두성D&C,

부안군에고향사랑기부금기탁

부안군은 11일 2025년 부안읍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행사에서 오아세헤어 전주 효자점 최유리 부원장과 ㈜두성D&C 황은호 대표가 각각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유리 부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날 황은호 대표를 대신해 행사마를 부녀회 심금리 회장과 최유리 부원장을 대신해 오빠인 최대열씨가 기탁식에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황은호 대표와 최유리 부원장의 기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사례”라며 “기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소중히 활용될 계획”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며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으로 지정기부사업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라!’ ESG사업,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토지·주택 특성 협의회’ 개최…공시제도 운영 나선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1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택 특성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7일 토지와 주택 간 특성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시가격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불일치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개별공시지기와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주택의 특성 및 일단지 불일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담당 부서들은 이러한 불일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 토지와 주택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동일한 단지에서는 토지와 주택의 특성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기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5년사업 설명회및 개강식개최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1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설명회 및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방향을 소개했으며, 기초 소양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검정고시 정보를 한눈에 보고 들을 수 있어 이해하기 쉬웠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며, 올해도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 자기계발, 자격증 취득, 건강검진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063-545-01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 ‘드론스포츠 메카’ 도약 위한 MOU

㈜디에프엘코퍼레이션과 MOU 체결…드론스포츠 민관 협력 강화
남원시, 드론 스포츠·배송 분야 집중…드론 산업 거점도시 도약 기대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활용하고자 국토부 주관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공모사업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일 남원시청에서 ㈜디에프엘코퍼레이션(대표 정선이)과 드론 스포츠 글로벌 운영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국토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드론 레저스포츠, 드론 배송, 행정서비스 등의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드론 서비스를 구축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2년간 선정돼 첨단 드론 스포츠 자동차 시스템 개발,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소방 드론 고도화 사업, 남원형 레이싱 드론 기체 개발, 드론 배송, 드론 항공촬영으로 행정서비스를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남원시는 지난 10일 ㈜디에프엘코퍼레이션과 드론스포츠 글로벌 체계 구축과 인력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위한 3D 맵을 구축했다.

25년 공모사업에 시는 드론 레저스포츠, 드론 배송 분야로 신청한다.

이번 협약은 드론 기술의 발전을 지역 사회와 연계시키고 남원을 드론 스포츠 중심도시와 교육메카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협력의 첫 단계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드론 레저스포츠 육성에 교육과 대화를 통해 지역 청소년·시민을 위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신협 전북지역협의회, 도농교류 협약

‘농촌사랑 동행순창’ 체결…순창서 연수-워크숍 등 진행

순창군과 신협 전북지역협의회가 지난 10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다.

순창군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최태일 신협 전북지역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협 전북지역협의회 임직원들은 연수와 워크숍, 순창투어 등을 진행하며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고향

사랑기부제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이 도농교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 한관공과 ‘맞손’…발효테마파크 활성화 박차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 협약 체결…연계 관광상품·홍보 마케팅 강화

순창군과 한국관광공사가 순창발효테마파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군수실에서 한관관광공사와 ‘강소형 잠재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순창발효테마파크가 선정됨에 따라, 관광 활성화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순창 발효테마파크 및 인근 관광자원의 연계 상품화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 ▲관광 현황 분석 및 개선 전략 수립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플루언서와 트래블 리더를



순창군과 한국관광공사가 ‘강소형 잠재관광지 활성화’ 업무협약으로 순창발효테마파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홍보 영상과 안내판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번에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강천산 군립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발효테마파크를 더욱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 전라권의 새로운 문화·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한미양행과 화장품 해외 시장 확대 본격 도모

남원시가 ㈜한미양행과 협력해 남원기성성 화장품의 해외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한미양행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베트남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 10일 베트남 헬스케어 유통전문기업 안틴팻(An Thinh Phat)의 대표이사과 부사장이 남원을 방문했다. 안틴팻의 Pham Ngoc Huan 대표이사과 Bui Anh Tuan 부사장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화장품 전문 지식산업센터) 내 한미양행 화장품 공장을 방문해 원료연구개발·가공기술, 생산 및 제조 인프라를 우수성을 확인했다.

이들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개발한 남원·지리산 원료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 한미양행과 공동 개발 중인 남원 마가목과 배롱나무 화장품 원료를 활용해 출시할 가능성 화장품을 베트남 시장에 적극 유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틴팻은 베트남 내 ‘한미페이스워시(Hanmi Face Wash)’ 프랜차이즈 10개 지점을 운영하는 전문 유통기업으로, 한미양행의 ‘한미화장품’ 브랜드 제품(헤어&바디케어, 스킨케어, 마스크팩&클렌징 등)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주)한미양행은 1967년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경기도 파

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본격적인 글로벌 화장품산업의 진출을 위해 작년 10월 남원 코스메틱비즈센터에 입주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한미양행은 작년 3월 8일 ‘천연물 바이오산업 기술 및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마가목과 배롱나무 등 지리산 자생 식물을 활용한 K-소재 기반 화장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미양행은 베트남 총판(An Thin Phat)과 협력해 베트남 내 피부관리 프랜차이즈점 10개 지점을 오픈하고, K-Cosmetic 열풍을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작은도서관 50곳 집중 육성…독서문화 적극 확대

완주군이 지역주민들의 독서 습터이자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육성에 적극 나선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 9개소를 비롯해 아파트·교회 등에서 자체 운영 중인 사립작은도서관 13개소 등 총 22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군은 작은도서관의 자립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작은도서관 역량강화 교육 ▲작은도서관 순회서서 지원사업을 통한 전문서사 파견·지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관구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완주군 상관면의 ‘기차길작은도서관’은 전북특자도 우수운영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 완주군은 작은도서관 50개 육성을 목표로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업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전문인력 부재 등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미등록 사립작은도서관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우수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북큐레이션(주제별 도서추천 서비스) 공유 ▲도서 및 기자재 구

입 지원 등으로 사립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정 계층에 특화된 공립작은도서관 조성에도 나선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작은도서관’ ▲노년층을 위한 ‘어르신 작은도서관’ 등 모든 세대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이자 문화·학습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서관 조성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노인대상 독서프로그램 활동가 양성,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도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시민 주도 활동 ‘온남원공동체 공모’ 모집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 참여공동체를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모집·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00만 원 규모이다.

신청 자격은 남원시에 기반을 둔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5인 이상의 시민으로 결성된 공동체이며,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라 진입 단계 500만 원 지원(10팀)과 발전 단계 1,000만 원 지원(3팀)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은 ▲지역 돌봄 강화, ▲

도농 교류 확대, ▲일자리 창출, ▲마을 소통 활성화, ▲마을 의제 실현 등 다양하며, 추후 연말 성과 공유회를 통해 공동체 활동 결과를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3월 7일 발표된다. 선정된 공동체는 업무협약식 및 회계 교육을 거쳐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활동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3일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접수 전인 17~18일에 사업계획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남원시 홈페이지를 참고,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이며 공동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전자우편(jg9714@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장류축제 추진위 위촉식 열고 축제 준비 돌입



순창군이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며 축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축제는 순창군의 전통 장류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축제 관련 기관·단체 대표, 전문가, 군의회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최영일 순창군

수가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 선출도 진행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영식 위원장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는 전인백 위원이, 간사로는 서화중 위원이 각각 선출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순창장류축제는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 심사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매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공연, 장류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보이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올해 축제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청렴학당’으로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완주군이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 완주 청렴학당’ 운영을 추진한다.

10일 군은 최근 신규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첫걸음, 반부패·청렴교육’을 시작으로 2025년도 청렴교육 추진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완주 청렴학당에서는 부패방지 및 갑질예방 교육 등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신규 청렴시책으로 추진하는 신규직원 대상 청렴교육, 인허가 및 회계업무 담당자 등 부패취

약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한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품의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주로 교육해 공직자 청렴마인드를 함양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시간은 연 1회, 2시간 이상이지만 완주군은 청렴학당 운영으로 연 7회, 6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의회, 지역 도에 문화 발전 방안 논의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10일 소양면에 위치한 화심도요를 방문해 지역 도에 문화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심부건 의원과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완주의 도에 문화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도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판로 확대, 관광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에서 특선을 수상한 임경문 도예가는 작업 시간 확보를 위해 외부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이날 방문을 통해 자신의 도예에 대한 고집과 열정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도에 창작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도에 작품의 판로 개척 및 유통 지원 ▲도에 축제 및 전시회 활성화 ▲도예가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며, 완주군이 도에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심 의원은 도에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향후 지역 도예인들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운봉읍 황산식당,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 동참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가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착한가게 기부에 동참해준 황산식당(대표 신명철)을 방문해 헌판을 전달하고 운봉읍 착한가게 13호점 탄생을 축하했다.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월 3만원 이상 일정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은주, 신동열)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황산식당 신명철 대표는 “맛 좋은 운봉 흑돼지를 주메뉴로 우리 황산식당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운봉읍민들 덕분”이라며 “착한가게 기부 캠페인을 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을 결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날 헌판 전달을 위해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동열 민간위원장과 손원철 협의체 위원(운봉읍 이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착한가게 13호점 탄생을 축하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제7기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회 출범…복지네트워크 강화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유희태, 백정열)가 지난 10일 제7기 완주군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지역사회보장 전반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장서비스 향상 및 협의체 내실을 기하고자 사회복지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심으로 20명이 구성됐다.

제7기 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에는 새싹원 원장 유재현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교육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임소근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지역주민의 연계·협력과 대표협의체의 심의, 자문사항의 사전검토와 주요사업논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군,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진안군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업 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안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졸업·중퇴·수료자다.

모집인원은 총 16명이며, 신청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참여자는 필수교육을 이수한 뒤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당 지급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해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경우, 50만원의 취업 성공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청년 활력수당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집중해 취업에 성공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농업과학원, 임실군 폭설 피해 농장 찾아 작물 관리 지도 강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농업과학원(원장 이승돈)이 전북농업기술원, 임실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도기관과 합동으로 최근 폭설 피해로 상실이 큰 임실군 내 피해 농장을 찾아 농업인 위로와 피해 복구를 위한 작물 관리 등 현장 지도 활동을 강화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유례없는 폭설 및 최근 한파 등으로 추사 및 시설하우스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농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과학원 및 임실 농촌 지도기관은 폭설 피해 농장을 찾아 시설 복구와 피해 하우스 재배 작물의 적절한 생육 관리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승돈 원장은"최근 이상기온의 확대로 농업 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일선 농가의 사전 시설물 관리 및 사후 농작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재해 예방 대처를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대학생 주거비지원’ 확대 등 의결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11일 장수군 귀농귀촌센터 교육장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인제육성기초를 개정하고 청소년교육지원 프로그램 확대했다고 밝혔다.

인제육성기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학생 주거비지원 장학금 확대로 지급 기준을 기존 2~4학년에서 1학년까지 확대한 것으로 대학 신입생 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체육학과 등 실용예체능 분야 상시 특강 개설 ▲오피스 인제육성사업 인터넷강의 지원 기간 연장(차기 년도 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소속 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특강 신설 등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들도 승인됐다.

최훈식 이사장은 "대학생 장학금 확대와 더불어 재단의 예체능 진로·진학 지원사업을 통해 장수군 관내에서도 체계적인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오피스인제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학생 21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캠프를 개최한다. '나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의 확장'을 주제로 진로 특강, 문화공연, 진로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돕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반할주택’ 선정…320억 확보

‘더 특별한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 선정, 2028년까지 100호 조성 및 공급 예정

장수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더 특별한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북개발공사 160억원, 도비 8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2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반할 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전성 제공을 위해 반값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다. 최초 입주 때 임대료 절반만 내고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주고 10년 임대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으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장수를 노하리 일원에 반할주택 100호를 조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기존 주택시장보다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장수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더 특별한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장수군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인구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북개발공사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생활 터전을 제공할 전망이

/장수=최진수 기자

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반할주택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무주군, 국가예산 확보에 발빠른 행보

최정일 부군수 국토교통부 등 방문, 대규모 국책사업 우선 주력

지난 5일 국가 예산 확보 전략회의에 이어 중앙부처 문을 두드리는 등 국비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무주군의 행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군비 부담이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우선 주력할 방침으로, 무주군청 최정일 부군수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최정일 부군수는 국토교통부 우정훈 철도정책과장과 강태석 도로정책과장,

이윤우 도시시설안전과장 등 중앙부처 부서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무주를 통과하는 전주~김천, 대전~남해 철도 건설 사업 추진이 관광수요 창출과 이동 수단 다양화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전주~무주~대구 등 동서 3축 연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주~무주 간 고속도로(L=42km) 건설계획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신규사업으로 포함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이뿐만 아니라 종횡단 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국도 19호선 안성~적상 4차로 확장 사업(L=4km, B=20m) 역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도로공황철도과장을 지낸 바 있는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교통체계 개선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와 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관련 철도·도로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군, ‘학천지구 통합개발 사업’ 군민의견 청취

인접 마을 주민 우선 설명 진행…‘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로 군민 이해도 높여

진안군이 군 랜드마크로 키워나갈 학천지구 통합개발 사업에 대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12일 진안읍 기관사회단체장회의를 시작으로 학천지구와 인접한 마을 주민, 시설별 이해관계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우선 설명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논변기에 앞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천지구 통합개발 사업은 학천지구에서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진안문화예술회관, 온가족 다올마루, 복합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안군에서는 학천지구를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완충지로 여겨 넓은 광장과 문화예술 공간을 갖춰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로 지역 거점 도서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진안문화예술회관은 6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3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로 우리 군에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온가족 다올마루는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270제곱미터 규모로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이벤트 활용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해, 필로티 공법으로 부족



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읍소재지 내 주민 소통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군 발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학천지구 통합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고향사랑 감사이벤트에 전국적 기부행렬

올해총기부건수483건중72% 차지

임실군의 새해 첫 고향사랑기부 소통을 위한 감사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둔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고향사랑기부부를 해주시민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 이벤트를 전개 중이다.

이번 이벤트는 임실군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일반적으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임실군은 특별히 3만8천원 상당의 치즈를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자체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어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플랫폼과 전국 모든 농협은행 지점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심민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임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기부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지속적인 이벤트 추진을 통해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징기스칸 후예들, 몽골 전통 공연 펼쳐

2025 임실 방문의 해 맞이, 문화교류 위한 친선공연 개최

임실군이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해 몽골과의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몽골 전통 공연'을 오는 13일 임실 군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임실문화예술진흥회(이사장 진남근)가 주최하고, 몽골한인상공회의소가 주관한다. 세계를 호령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전하는 웅장한 역사와 몽골의 유목 문화에 깃든 정신을 예술의 향연으로 재현했다는 곡해설과 함께 몽골반점 스토리텔링으로 관

람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공연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우리 민족과의 유사점이 많은 몽골 전통 공연을 많은 군민들이 참석해 즐길 수 있길 바라고, 멀리 몽골에서 방문한 미라지예술단원께 감사드린다"며 "이 공연을 계기로 몽골과의 교류의 물꼬를 더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현안 해결 위해 안호영 의원실 방문

진안군이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0일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을 요청했다.

전 군수는 안호영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용담호 하천관리지구 변경(용담호 예코가는 조성사업, 진안·주천 파크

골프장) ▲진안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해제) 확대 ▲신광재 산악관광 활성화 등 진안군 역점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앞으로도 국회,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 함께 행복한 생태건강치유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주민 주도적 마을’ 활성화 기대

진안군이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해 '2025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참여 마을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올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1단계인 그린빌리지사업을 시작으로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32개소의 마을

이 참여한다.

진안군은 점진적인 마을 발전을 위한 단계별 사업비를 투입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며, 특히 4단계인 자율 개발 사업에는 주민 주도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개발을 위해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강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정월대보름 맞이 지역 안녕과 풍년 기원

무주군에서는 지난 11일 무주읍을 시작으로 12일까지 6개 읍면 38개 마을에서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1일 무주읍 남대천에서는 주민 등 5백여 명이 함께 달집태우기와 달맞이, 약밥 나누기에 동참하며 주민 안녕과 풍년, 그리고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무주읍발전협의회(회장 김성용)와 청년회(회장 박희환)가 주관해 직접 10m 높이의 달집을 쌓고 태우기까지 진행해 장관을 연출했다. 같은 날 부남면에서는 청년회(회장 김호연)가 주관하는 풍년기원제와 달

집태우기가 부남체육공원에서 펼쳐졌다. 적상면 신대마을(서창)과 내창마을 산제당에서는 산신제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적상면 청년회(회장 이희재)에서는 오색단풍이야기센터에서 웃놀이와 부럼깨기, 소원문달기 등 민속놀이와 풍년기원제, 사물놀이 등을 진행하며 하가마을(마을회관)에서도 웃놀이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같이 나누고 즐기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2025년 한 해 복을 부르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메이저 스마트 건설 황혜경 대표,
김제시에 5백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메이저스마트건설 황혜경 대표가 11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용지면 출신인 황혜경 대표는 지난 2016년 김제 순동산단길에 전기 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메이저 스마트 건설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김제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황혜경 대표는 지난 2023년에도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받은 150만원 상당의 유과를 고향인 용지면에 재기탁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황 대표는 “고향 김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김제시 발전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며 “이번 고향사랑기부로 김제시민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장수군 장계면 밥퍼봉사대, 사랑나눔 배식봉사 실시

장수군 장계면은 직원들로 구성된 밥퍼봉사대가 지난 10일 장계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계노인복지관 1층에 마련된 경로식당은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80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나누는 곳이다. 장계면직원 밥퍼봉사대는 올 2월부터 매주 월요일 전직원이 조를 편성해 근무의 시간에 배식 및 청소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로식당에 참여한 장계면노인회 이철성 총무는 “바쁜 점심시간 배식 일손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손수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아 주며 어르신들에게 배식해 주는 모습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말했다.

조장호 면장은 “무료급식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하면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러한 봉사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져 온기 가득한 장계면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군산 이성당, 아동 420명에 생일케이크 선물

2015년부터 이어진 나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무료 생일케이크 후원 지속

대한민국 대표 빵집, 이성당이 보내온 사랑의 생일 케이크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0일 이성당이 ‘해피무브: 너의 생일을 축하해’ 사업을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420여 명에게 생일 케이크와 축하인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산 지역 내 0~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나눔 사업이다.

이성당은 2015년부터 참여해왔다. 2024년까지 4천 9백여명의 아동에게 생일 케이크를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으며 올해도 그 사



대한민국 대표 빵집, 이성당이 보내온 사랑의 생일 케이크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랑은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시, 춘향제 글로벌춘향선발대회 참가자 접수 시작

1997년 1월1일~2008년 12월31일 출생자 중 3월 31일까지 접수, 지역 무관

남원시에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제95회 춘향제의 글로벌춘향선발대회 참가자를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응모자격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로 지역 제한은 없다.

서류심사 결과는 4월 7일 공지될 예정이다.

4월 12일, 4월 13일 1·2차 예선으로 양일간 본선 진출자를 확정하

고 4월 20일부터 10일간 합숙 과정을 거친 뒤 4월 30일 남원 요천로 특설무대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은 진·선·미·정·속·현, 특별상과, 우정상 등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남원시장은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제95회 춘향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글로벌춘향선발대회는 올해부터 참여자 나이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참여를 확대하는 등 더욱더 볼거리가 가득한 행사로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춘향제는 소리를 주제로 한 공연 프로그램, 더본코리아와의 협업 기반 F&B 운영, 유채 꽃반신 규 조성 등을 통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품질 있는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 애향장학회 향한 훈훈한 기부 연대

연일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는 인제 육성 기부가 넘쳐나, 지역 사회에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사)한국생활개선 임실군연합회(회장 정현옥)가 200만원, 임실개인택시 단위조합(조합장 왕동열)이 250만원, 임실을 상원마을 김영수 이장이 100만원, 임실군청 종합민원과 정일범 주택정책팀장이 100만원을 임실군 애향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한국생활개선 임실군연합회는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와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 설립된 여성단체로 1개 연합회, 12개 읍·면회 52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심 민 군수는“임실군 생활개선회와 임실개인택시 단위조합, 지역민과 행정의 연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봉황인재학당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애향장학금과 장학수 운영까지 단계적 지원의 견고한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군 화산면, 정월대보름 맞이 ‘사랑의 찰밥’ 나눔

완주군 화산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강은아)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11일 화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찰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화산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직접 찰밥을 준비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임미정 화산면장은 “해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찰밥 나눔 활동을 실천해 주시는 새마을부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 더욱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NH농협 정읍시지부, 아침밥 먹기 캠페인 및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개최

NH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는 11일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회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15백만원 상당의 정읍 쌀을 기부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순기 NH농협 정읍시지부장, 이호춘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장과 회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기 지부장은 “지역 쌀 소비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건강도 증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통해 쌀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잠깐만요! 버리기전에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내집, 내점포앞에 배출

배출 시간 20시~다음날5시

검은봉투 배출 금지 투명봉투에 배출

용기안의 내용물 깨끗이비우기

부착상품 제거후 타 재질 분리배출

〈一事一言〉



내란 우두머리와 한 몸 국힘당, 이대로 좋은가

강민정
전 국회의원

온 나라를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한밤중 날벼락 같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달이 훌쩍 지났다. 국력은 급전직하했고, 국가 신인도 추락으로 경제지표들은 얼어붙었다. 민주주의 모범국, 경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높아졌던 자긍심은 부끄러움과 분노에 자리를 내주었다.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가고 무엇보다 국민 일상의 곤궁함은 깊어가고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 체포, 구속, 기소로 이어진 지난 수십 일 간은 매 순간 마음을 졸여야 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2017년 박근혜 파면 결정 시점이 거의 유일한 현재심판 시점이었던 사람들마저 매주 열리는 현재 탄핵심판 중계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대통령으로 뽑혀 2년 7개월이나 국정을 책임졌던 이의 비무함과 비열함은 낯설기로 생경해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고문하고, 수거하고, 수장까지 시키려 했던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사실 웃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니냐'며 발뺌하는 모습에서는 소시오패스를 보는 듯한 섬뜩함이 저 느껴졌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 뻔뻔 우기는 윤석열 덕분에 국회 진입한 군인들도 의결정족수라는 게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원'이란 말을 써 본 적 없다더니 1분여 뒤 스스로를 탄핵할 거짓말을 거짓없이 내뱉을 때는 뻔뻔함보다는 추한 몰골의 거짓말 자판기를 보는 듯했다. 무엇보다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

길 때, 그가 더 이상 용산 대통령실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 같아 오히려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소장은 그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결론 내렸다. 의원이든 요원이든 인원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반국가 세력 척결 목적으로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든 대국민 호소 목적이든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 77조 1항 요건에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임의 선포했으며, 같은 조 4항에 따른 국회 통고도 없이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해 국회에 대한 무장침입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국회가 아닌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을 무력화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보다 먼저 기술되고 있는 것이 국회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정신의 당연한 결과다. 또한 헌법은 국민대표들에게 입법권은 물론 계엄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은 명백한 헌법위반자다. 탄핵심판은 형사법적 범죄 유무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일이다. 헌법, 법률 위반으로 곧 파면 당할

윤석열은 아직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설사 그가 탈당하더라도 그를 자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군 통수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게 한 국민의힘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계엄해제 즉시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와 절연하고,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할 기회를 살렸다면 용서는 안 되도 이해는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회를 모두 건여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당으로서 어떻게 책임질지 아무 것도 보여 준 바 없다. 곧 치러질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운영 공동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2017년 박근혜 탄핵 때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책임의 성격과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 박근혜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죄에 대한 책임이었으나 윤석열은 민주공화국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파괴하려는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 대한민국 헌법 8조는 정당설립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기소되고 파면될 지경이다. 그 대통령과 2년 7개월 동안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해 온 정당이라면 그 당은 국민에게 배배사죄하고 자진 해산하는 것이 맞다. 꼭 정당 활동이 필요하다면 민주적 기본질서 준수를 약속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에서 집권

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주권자에게 국정운영을 맡겨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 그래야 국가로부터 정당 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설사 간판과 상징적 얼굴 몇 명만이 바뀔지라도 이는 대한민국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현존하는 거대 야당 중 하나라고 해서 그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내란 우두머리와 절연하는 어떤 과정과 절차도 없이 현 국민의힘으로 정당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밖 일이다. 조만간 현재 탄핵심판은 끝나고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국민의힘 주체들이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국민심판으로 사실상 해산당하기 전에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물론이지만 대한민국에 건강한 보수가 건재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조언이다.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링크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환영한다

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복수주심제 도입,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청소년 관련 사건 심리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면서 도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복수주심제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전문가와 법률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복수주심제는 한 사건을 두 명 이상의 주심위원이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다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과 법률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심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사례 공유, 협업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심판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전자심판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경제적 이유로 법률 대응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재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변호사와 노무사를 추가로 위촉한 만큼 이들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관련 사건 심리 기준 완화와 같은 세부 정책도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난해 도입된 완화된 심리 기준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현실적인 심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사기,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사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궁극적 목표는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기적인 법률 상담 행사,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사건이 지연될 경우 도민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AI를 활용한 사건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은 도민 권익을 수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보다 정교한 제도 운영과 도민 중심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복수주심제의 실질적 운영,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심리 기준 개선, 도민과의 소통 강화, 신속한 심리 절차 구축이 이뤄진다면 영세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통해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법적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선운사 영산전 목조삼존불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불교조각, 목조, 불상
-지정일- 1973년 6월 23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오늘의시

門이 열리고 / 나희덕

한 개의 門이 열려
머칠째 눈발이 천지를 때우더니
천 개의 門이 닫히고
발들은 모두 묶이고 말았네
마른 풀대도
시린 발목을 눈에 묻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네
소리들도 갇혔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가장자리는 열어가지만
흐르는 물만이 門을 닫지 않아
나는 물소리 앞에 쫓겨라 앉았네

천 개의 門이 닫히고
당신에게로 흐르는 水門만이 남았네
눈송이를 낚으려 하나
물에 닿는 순간 사라져버리네
젖은 눈 속에 젖은 눈,
그 열린 門으로 나도 따라 들어가네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그 말이 잎을 물들었다'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문집으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2019년 3월부터 서울과학기술대 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윤관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장수지국 010-8626-6049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하루의 이야기, 전북타임스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282-9601 기사제보282-9603 구독신청282-9600



익산시, 5대 역점 시책으로 “위대한 도시” 만든다!



익산시가 5대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 운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민수 기획안전국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5대 역점 시책, 20대 중점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위대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특히 한문화 발상지라는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설정한 올해 5대 역점 시책은 ▲자연을 품은 녹색 정원 도시 (Garden City) ▲한문화의 뿌리를 간직한 도시(Rooted City)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도시(Equitable City) ▲신산업 동력 기반의 미래 성장 주력도시 (Anchor City) ▲전북의 경제생활권을 선도하는 교통도시(Transport City)다.

◆자연을 품은 녹색정원도시 (Garden City)

우선 시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녹색 복지를 편하게 즐기도록 도심 속 공원 조성에 힘쓴다. 지난해 조성한 대규모 도심공원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 ‘모인공원’에 이어 올해도 ‘소라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옛 시청사 건물이 철거되는 자리에 5,000주 이상의 수목이 식재되는 광장 공원이 들어선다.

도내 첫 국립 치유의 숲도 오는 3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치유의 숲은 웅포면 할라산 위에서 금강의 비경과 울창한 숲을 즐기며 산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치유의 숲은 한반도 최북단 녹차밭과 휴양림, 임도에 조성한 꽃밭 등 다양한 산림 자원의 매력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당길 전망이다.

자연환경 훼손의 아픔을 겪은 왕궁면은 대형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새로 거듭난다. 시는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통해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생태 교육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영국 에덴프로젝트 팀과 함께 대규모 온실정원 체험공간 조성을 기획할 예정이다.

◆한문화의 뿌리를 간직한 도시 (Rooted City)

시는 올해도 ‘한(韓)문화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작업을 이어간다. 2,000년 전 마한의 성장을 이

끈 농경 문화 자산 ‘황등제’ 발굴 조사도 그 일환이다. 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방으로 밝혀진 황등호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조성 ▲익산마한문화대전 개최 등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식 도시’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시는 청년식품창업센터 운영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 적극적인 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

지난 1월에는 익산의 맛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미식산업계’를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순맛’으로 유명한 지역의 김치 명장과 함께하는 김장문화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해 도시와 농촌이 화합하는 자리를 만든다.

시는 이같은 지역의 자원을 발판삼아 1,000만 관광객으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시는 ‘왕궁 보석테마관광지’에 하늘자전거를 신규로 설치했으며, 익산교도소 세트장에 체험형 이색교도소를 신축한다.

또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 백제왕궁 일원에서 열리는 문화유산여행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도시 (Equitable City)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익산시는 전북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다. 시는 올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합영읍과 금마면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이외 지역에도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과 이자 지원을 진행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향토기업 하림과 함께 치킨로드를 조성한다.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책 ‘다이어يوم’은 올해 4,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시는 모든 세대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 전반 복지 실현’에 나선다.

지난해 준공한 여성가족회관 ‘다우리’는 가족 상담부터 전반적인 교육·문화 서비스를 두루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노년층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회관이 준공한다.

또 결혼과 임신, 출산, 보육에 이르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다이어يوم 모아 복합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산업 동력 기반의 미래 성장 주력도시 (Anchor City)

시는 식품·바이오 등 세계가 주목하는 신산업을 동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식품문화 복합산업단지 조성이 핵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207만㎡ 규모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일부가 전북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통합원광대의 글로벌대학 30 선정은 생명산업분야 특성화로 지역 혁신을 주도해 생명산업 거점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기업유치와 지역 정주형 인력 양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가 전

북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구 지정을 위해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1호 벤처캐퍼츠’는 연내 준공 예정이다.

◆전북의 경제생활권을 선도하는 교통도시(Transport City)

익산은 호남 교통의 관문이다. 시는 3

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북의 경제생활권을 선도하는 교통도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늘어나는 익산역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익산역 확장·선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새만금을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교통협약체 구성에 힘쓰고 있다. 전북 권 광역철도는 도내 주요 도시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및 생활

권 확장을 실현할 전망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사업은 전라선 동익산역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수소특화산단, 완주산단을 차례로 잇는 12.2km 길이의 철도 노선이다.

지역 산업·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는 해당 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2025 시정운영방향

5대 역점시책 20대 중점과제



G Garden City 자연을 품은 녹색 정원도시

1. 도심 속 공원 조성
2. 웅포면 생태습지 생태관광지 조성 박차
3. 할라산 산림복지 벨트화 추진
4.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 본격화

R Rooted City 한(韓)문화의 뿌리를 간직한 도시

1. 역사문화 거점공간 구축
2. 한(韓)문화의 발상지 익산의 정체성 확립
3. 한류의 원류, K-푸드 활성화
4. 한(韓)문화의 중심에서 1,000만 관광객도시로의 도약

E Equitable City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도시

1. 생애 주기 전반의 복지 실현
2. 세심하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3. 전인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환경 구축
4.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잡힌 동반 성장

A Anchor City 신산업 동력 기반의 미래 성장 주력 도시

1. 선도적인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속 가능한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3. 미래 신성장 홀로그램·XR 산업의 중심
4. 산업단지 확장 및 종합적인 도시 개발 추진

T Transport City 전북의 경제생활권을 선도하는 교통도시

1. 새만금 메가시티 연계 공동경제권 구축
2. 호남철도의 관문, 익산역 확장 추진
3. 스마트 교통도시 플랫폼 구축
4.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주차 문화 확산

IKSAN CITY